



주제: 1. 이 세상, 내가 만들었지! (Who am I?)

달달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이야기 성경

* QR코드를 스캔
하여 말씀챗트를
만나보세요~!



말씀 배우기

1. 나는 ()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여러 가지 말들을 넣어 보세요.
2.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나요?
()
3.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

성경이 궁금해요~!

궁창이란?

궁창은 하늘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 '둥근 천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땅의 기둥이나 하늘의 기둥이 궁창을 떠받치고 있다고 여겼지요.

현대의 몇몇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평평한 지구와 돔 모양의 궁창과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상상했으며, 궁창에 해, 달, 별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창조 전에는? 혼돈

혼돈이란 태초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 말로 (창 1:2), 질서가 없고, 형태가 불분명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서는 혼돈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아름답고 질서 있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말이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느끼신 감정이예요. 이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어요.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한순간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좋다는 감정이 쪽 이어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잠깐 좋으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쪽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나눠 봐요

- *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 *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